

지역 매아리

정읍시, 노인 행복 사업 실시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노인인구가 25.6%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관내 경로당 40개소를 대상으로 2월부터 3월까지 노인우울척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노인우울척도검사는 노인의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 등을 겪고 있는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스크리닝(우울선별검사) 후 고위험군으로 선별된 대상자에게 1:1전문상담과 치료기관 연계, 정신건강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맞춤형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검진 사업을 통해 고위험군을 선별 후 우울(노) 행복(노) 사업 등을 통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서비스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위험군 대상자의 지속적인 관리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읍시보건소장(문상용)은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인 노인의 정신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노인우울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 내 어르신들의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적·심리적 어려움 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 상담전화 129와 자살예방상담전화 1388가 24시간 운영되며,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063)635-2102(주간)에서도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주·정차 문화 확산 주차질서 확립 캠페인 실시

부안군은 최근 부안터미널 사거리와 불법주정차 대밭구간 등에서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산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부안군과 부안경찰서, 부안소방서, 바르게살기 부안군협의회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캠페인에서는 주정차 위반 사례 등에 대한 홍보전단을 운전자와 일반 주민들에게 배부했으며 부안을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에 대해 홍보했다.

부안군 인택면 건설교통과장은 "오는 3월부터 차량탑재형 CCTV를 통한 이동형 단속차량과 병행해 총 11대의 무인 단속 CCTV를 활용해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사진촬영 및 과태료 부과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을 운전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국내 유일 세계유산도시 되나

고창군, 고창갯벌 포함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서 제출

한국의 갯벌이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대상지에 오른 가운데 고창군이 국내 유일 세계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모두 보유한 도시가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창군(군수 유기상)은 고창갯벌이 포함된 '한국의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등재 신청서를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의 갯벌'은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대표적 갯벌인 전북 고창을 비롯한 충남 서천, 전남 신안, 보성·순천 갯벌 총 4곳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한국의 갯벌'은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생물종 다양성이 나타나며, 저서동물, 염생식물은 물론, 흰물떼새, 큰고니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 위기종의 서식처로 호평 받고 있다. 또 지형적·기후적 영향으로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펄 퇴적층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로 제시했다.

여기에 신청 지역은 모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국내법적으로 충분한 보호 관리 체계를 갖춰 세계유산으로서 가치를 증명하는 중요



고창 갯벌.

한 근거가 됐다.

'한국의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형식 검토를 거친 뒤, 올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각각의 심사기구인 세계자연보존연맹(IUCN)의 심사를 거쳐 2020년 7월께 열리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등재가 확정되면, '한국의 갯벌'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2번째 세계자연유산이 된다.

특히 고창군은 '대한민국 유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고창지석묘), 세계자연유산(고창갯벌),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고창농악, 고창판소리)을 모두 보유한 진정한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로 인정받게 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문화재청, 해당 지자체, 지역주민, 관계부처, (재)한국의 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등과 함께 현지실사 등 심사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변화·혁신 통해 일하는 조직 실현"

권익현 부안군수, 월례조회서 지역발전 견인 강조

권익현 부안군수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일하는 조직 실현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자고 강조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최근 열린 2월 중 월례조회에서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감소 등 산적한 현안들을 놓고 더 이상 안주하면 부안군의 미래는 없다"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일하는 조직을 실현해 지역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소산업을 기반으로 한 신재생에너지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이라며 "농산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복원해 누구나 살고 싶은 풍요롭고 행복한 부안군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또 권익현 부안군수는 "매화종류마 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어촌 300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부안의 성

공인화를 써 나가자"며 "매창공원으로 무대를 옮긴 제7회 부안마실축제 도 철저하게 준비해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전 국민과 외국인이 찾는 글로벌 축제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으로 삼자"고 주문했다.

특히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 모든 것을 실현해 지역발전을 이끄는 핵심에 부안군 1000여명의 공직자들이 있다"며 "우리 모두 손을 꼭 잡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완전히 새로운 부안을 실현하자"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익현 부안군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피와 땀으로 일군 내일"이라며 "이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변화와 혁신으로 밝고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행렬 이어져

정읍시민장학재단(이사장 유진섭)에 따르면 최근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새마을부녀회와 서울시에 소재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인 유재만 변호사가 각각 1백만원씩 기탁했다.

이에 앞서 태인면 태인농공단지 소재한 도로시설물 제조설치 전문업체인 (유)삼오(대표 최준삼)는 2012년부터 장학재단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장학금을 기탁해왔으며, 올해에도 장학금 1백만원을 기탁했다.

최 대표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인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또한, 정읍시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2018년도 구절초 축제 당시 음식부스



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회원들의 뜻에 따라 장학금으로 기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 변호사는 정읍시민장학재단의 전 이사이신 (故) 유봉순 이사의 자녀로 2007년부터 꾸준히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조리 척결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

고창군, 간부공무원 40명 참여 '청렴서약 실천 결의대회' 열어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최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군수를 비롯한 각 부서장과 직속기관장, 읍·면장 등 군 산하 모든 간부공무원 40명이 참여하여 '청렴서약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고창군 이길현 기획예산담당관이 간부 대표로 나서 공정한 업무수행과 부조리 척결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5개 조항을 준수하고 실천을 약속하는 청렴 서약서에 서명하며 청렴의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앞서 군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를 제출받았으며 올 한 해 ▲1부서1청렴시책 발굴 ▲청렴리더 지정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 ▲공직자 행동강령 자기학습시스템 운영 ▲자율적 내부



고창군이 최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군수를 비롯한 각 부서장과 직속기관장, 읍·면장 등이 참여하여 '청렴서약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통제 강화 ▲부패취약분야 예방감사 강화 등의 다양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군 유기상 군수는 "군민들이 공직자에게 청렴에 대한 기대

치가 높은 만큼 간부공무원들이 청렴리더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대한씨름협회, 명절 맞아 정읍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위문

대한씨름협회(회장 박필용)가 2019년 정읍시 설날장사 씨름대회를 맞이하며 정읍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2개소를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다.

대한씨름협회 이준희 경기운영본부장과 정읍시청 소속 단품미인씨름단 관계자들은 지난 1일 정읍애육원 외 1개소를 방문하여 위문금 각각 1백만

원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위문했다.

이날 전달된 위문금은 대한씨름협회 산하 씨름선수들이 모금한 금액으로 대한씨름협회는 매 대회 때마다 개최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달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featuring product images, descriptions, and gift set options.